

지니언스 (263860)

“AI 공격, 기존 백신으로 무용지물” AI판 골드러쉬 핵심주

보고서 요약

- 2005년 설립. 2017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은 정보 보안 제품의 판매와 솔루션 도입 용역 제공
- AI판 골드러쉬, 아직 주목받지 못한 사이버 보안 시장에 집중
- 높은 침투 여력과 영업 레버리지 기반의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 2025년 매출액 604억원, 영업이익 119억원 전망

Analyst

한용희, 김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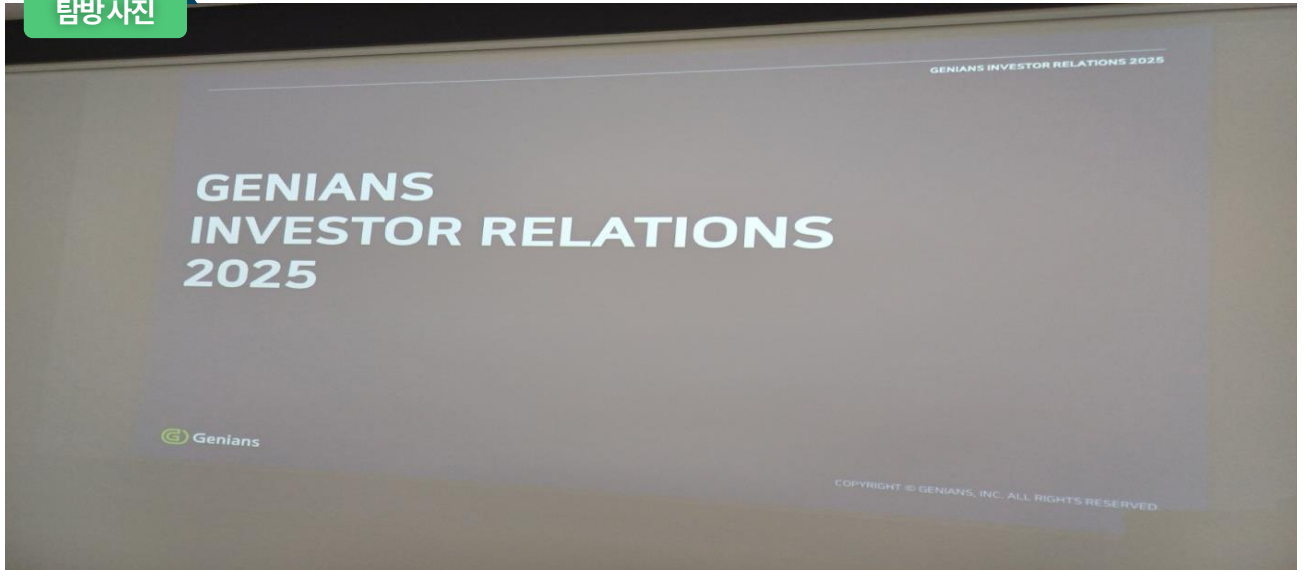
Info

기업탐방일자	2025. 06. 10
발간일자	2025. 06. 17
투자의견	없음

Company Data

시가총액	1,920억 원
상장주식수	9,079,600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소진율	27.28%

탐방 사진



실적·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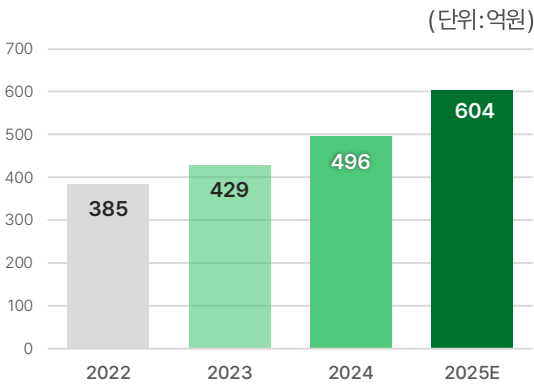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385	429	496	604
영업이익	69	65	98	119
당기순이익	71	62	109	131
당기순이익(지배)	71	62	109	131
당기순이익(비지배)	-	-	-	-
자산총계	597	636	693	828
부채총계	118	131	125	127
자본총계	479	505	568	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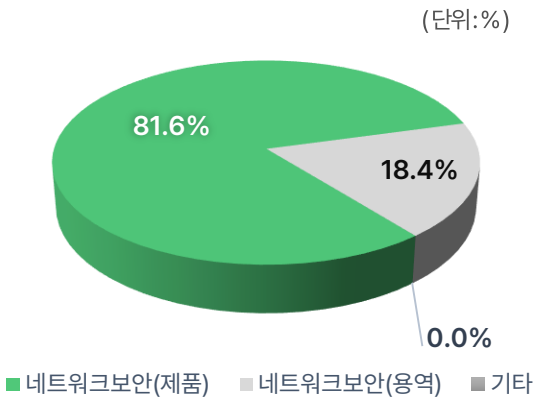
기업개요

- **설립/상장** : 2005년 설립. 2017년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정보 보안제품의 판매와 솔루션 도입 용역 제공
- **매출 비중** : 네트워크보안(제품) 81.6%, 네트워크보안(용역) 18.39%, 기타 0.01%
- **주요 주주** : 이동범 등 특수관계인 39.29%, Miri Capital Management 15.12%, 자사주 4.99% 보유

매출액 추이



매출 비중



주요제품 포트폴리오

통합 내부 네트워크 보안

Genian NAC

- IoT, 클라우드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지원
- 단말, 사용자에서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
- 단말 플랫폼 인텔리전스(DPI) 기반 기술로 상세한 가시성 제공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Genian EDR

- 백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단말 보안
- 침해지표(IOC), 딥러닝(ML), 행위 기반(XBA) 등 첨단 탐지/분석 기술 탑재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위협/탐지 및 운용 환경 제공

제로트러스트 보안의 모든 것

Genian ZTNA

- 클라우드/재택 등 분산된 IT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연결 지점 보호

정보보안 수준 진단 및 평가

Genian Cloud GPI

- 내 PC지킴이
- PC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보안 수준 진단 및 평가
- 사용자의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해 보안 체질 개선

AI 광풍 속, 웃는 자는 금 캐는 자가 아닌 '청바지 파는 자'-사이버 보안

AI 골드 러쉬의 수혜주:사이버 보안 산업

- **생성형 AI의 확산은 사이버 보안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촉매로 작용할 전망**
- 사이버 보안 시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협 탐지·방자·대응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AI의 등장, 특히 DeepSeek와 같은 저비용 AI의 확산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AI로 생성된 새로운 악성 코드와 공격 기법들이 기존 백신 중심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는 추세
- 기존 보안은 IT 예산 내에서 가장 방어적으로 지출되던 항목이었으나, 이러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보안 총괄자(CSO)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25%가 향후 10년간 보안 예산을 50%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밝힘

사이버 보안 시장 시장규모

- 글로벌 시장 조사 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시장은 **'30년까지 연평균 9~14%씩 성장하여 약 6,500억 달러(한화 800조원) 규모로 매우 빠르게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AI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의 난이도가 일상으로 확산되며, 사이버 보안 산업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특히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퍼스널 디바이스의 빠른 보급으로 보안 위협이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 특징: 공공 주도 → 민간 확대

-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YES 24 랜섬웨어 사태 등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민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기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성장하던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이 민간 부문으로 본격 확장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 비교적 미비했던 사이버 유출 처벌 제도가 강화되는 흐름이 민간 부문 보안 시장의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침해 미신고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치 전환, 사이버 공격 형사처벌 기준 상향
 - (개인정보보호법) 기존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책임 소재 명확화,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 3%, 최대 20억원으로 부과 가능하게 만들면서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
- '23년 기준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가 더 크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민간 부문의 확장이 사이버 보안 전체 시장 규모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제도 환경

미국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

내용	아키텍처 및 솔루션
정부와 민간 부문간 위협 정보 공유	
연방정부 사이버 보안의 현대화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강화(SBOM)	NAC
사이버 안전 심의위원회 구성	
사고 대응전략 표준화	
사이버 보안 사고 탐지 개선	EDR
사이버 보안 조사 및 복구 능력 향상	

한국 사이버 안보 현황 및 정책



국가 사이버 안보법·전략



사이버 안보 콘트를 타워



사이버 보안 모태 펀드

-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23년 9월)
- 사이버 보안 모태펀드('27년까지 1,300억 원, '24년 200억 원)
-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사업 ('24'년 62억 원)

- 정보보호 공시 의무제도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 국가망 신보안 체계(N2SF)
- 글로벌 공략을 위한 생태계 확충

'권고' 수준에서 보다 강력한 체계 마련으로 변화

75% 점유율, 20% 수익률...지니언스가 만든 NAC 성벽

- 동사는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자체 보안 솔루션을 직접 개발·판매하는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
- 현재 상용화되었거나 개발 중인 대표 솔루션은 NAC, EDR, ZTNA 크게 세가지로 구분
- **20년 연속 흑자와 17년 연속 매출 성장, 연평균 23.9%의 매출 증가율은 동사의 높은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뒷받침함**

NAC 설명

- NAC는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장비·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 후 통제하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으로, 접속자들을 식별하고 인증한다는 점에서 '출입 보안 검색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
- 허가된 장비와 사용자만을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내부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

NAC 경쟁 우위

- **동사 솔루션은 국내 NAC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조달 시장 기준 75%)을 차지하며 사실상 유일한 경쟁력 있는 제품**
- 시장 초기에는 외산 NAC(시스코 등)와의 경쟁을 했으나, 현재 동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지배력 보유
- 동사는 아래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됨.
 - 1) **기존 레거시 인프라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하면서** NAC 도입 장벽을 낮춘 점(외산 솔루션은 자사 제품 중심으로 변경)
 - 2) 공공 시장 진입에 필수인 **국정원 CC 인증을 동사의 제품이 보유**
 - 3) 국내 IT 업계 특성상 **국내 솔루션을 선호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점함**
- 민간 부문에서도 주요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면서 레퍼런스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
- **특히 사이버 보안 특성상 전환 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고객사 확보 후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한 구조**

NAC 매출 구조 및 마진율

- **NAC는 단말수 기준 라이선스 과금 방식으로, 고객 기업 인원 확장 및 공장 확장 등으로 규모 커질수록 매출이 증대**
- NAC는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으로 인력 투입 및 커스터마이징이 거의 없어 높은 마진율을 기록(영업이익률 20% 상회)
- **동사의 다른 솔루션에 비해 성장성이 비교적 낮지만 NAC는 핵심 캐시카우이자 고이익률 사업 모델 중심**

NAC 경쟁우위

1 Technology	2 Customer & Competitor	3 Value Proposition
가트너 선정 NAC Top 5 기업 (국내 및 아태지역 유일)	시장 점유율 1위(75%) 국내 최고 고객 확보(+3,000)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등 IT 및 고객 환경 변화에 적합한 서비스 포트폴리오 완비
특허 받은 DPI(Device Platform Intelligence)로 IT/OT 자산에 대한 식별 및 분류	기존 고객의 확장 수요와 마켓컬리 등 테크 중심의 신규 수요로 시장 성장	구독형 서비스 전환에 따른 비즈니스 안정성 확보
보안관리 운영을 위한 확장 정보와 위협 정보를 추가로 제공	공공, 금융에서 민간 기업 수요 확대	ZTNA/SASE 비즈니스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

글로벌로 향하는 EDR, 빠른 침투력과 높은 수익성의 조합

EDR 설명

- EDR은 사용자의 PC,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행위 및 신종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솔루션
PC의 이상행위를 감지하는 CCTV의 역할을 수행
PC에서 이상행위가 감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
-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존 백신(Anti-Virus) 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기존 백신은 알려진 악성코드만 탐지 가능하지만, **EDR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 및 이상행위를 감지하기 때문에 신종 악성코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 가능**
- 이러한 점으로 글로벌 EDR 시장은 연평균 24.8%로 NAC에 비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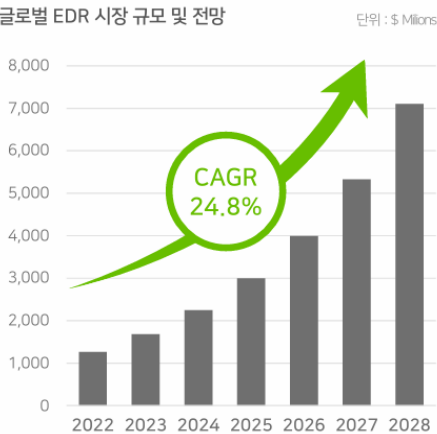
EDR 경쟁력

- 동사의 EDR은 안랩과 함께 국내 공공·금융기관에서 PoC를 통과한 대표 솔루션으로, 양사가 시장을 양분(동사 M/S 1위) 외산 벤더(CrowdStrike, SentinelOne 등)는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국내 망분리 환경에 EDR 진입이 어려움
동사는 구축형(On-Premise) EDR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 공공·금융기관 환경에 적합한 EDR을 납품할 수 있음
- 구축형으로 EDR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적은 편이며, 동사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중동 고객사로부터 EDR 도입 요청을 직접 받았으며, 5월에는 최초의 글로벌 EDR 고객사를 확보
중동 지역은 한국과 유사하게 자국 데이터 보호 성향이 강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약 10여개 중동 고객사가 PoC에 참여중, 해당 레퍼런스를 토대로 중동 시장 내 확장이 기대**

EDR 매출 구조 및 마진율

- EDR은 하드웨어 납품이 없고 커스터마이징 부담도 적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며
NAC(영업이익률 20%) 대비 더 높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EDR의 매출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향후 비중이 확대될 경우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빠른 이익 성장을 기대**

EDR 시장 규모 및 전망



* Source: Research and Markets, 2022.09

EDR의 진화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 Data collection
- Detection engine
- Data analysis engine
- Threat intelligence
- Alerts and forensics
- Trace back
- Automated response

MDR

Managed Detection & Response

- Managed EDR
- Perimeter telemetry
- Incident management and response
- Contracted service

NDR

Network Detection & Response

- Internal network D&R capabilities
- Behavioral analysis
- Security controls
- Insider threat detection

XDR

Extended Detection & Response

- Device controls
- Disk encryption
- Firewalls
- Orchestration
- Machine learning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traffic

* Source: Creative Networks, 2024.04

실적 추이

24년 실적

- 매출액 496억원, 영업이익 98억원, 당기순이익 109억원 기록
-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면서 성장을 이어가는 중, '24년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
- NAC의 안정적 매출 성장과 함께, EDR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15.7%, 52.2% 증가

25년 전망

- 매출액 604억원 영업이익 119억원 당기순이익 131억원 전망 (컨센서스 기준)
- 1분기 매출액 94억원 영업이익 0.4억원 기록하며, 사업 특성상 통상 적자 시즌이었으나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
- 경기 둔화와 관계없이 안정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됨
- 특히 민간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추정
- 이익률이 비교적 좋은 EDR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향후 이익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

실적 추이 및 전망

	2023	2024	2025(E)
매출액	429	496	604
영업이익	65	98	119
당기순이익	62	109	131

자료 : 그로스리서치 (단위 : 억원)

리스크 및 체크 포인트

'26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부터 공공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도입이 공식화되었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도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보안 패러다임으로, 한번 인증으로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요소를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다. 현재 과기부와 국정원 주도로 가이드라인 정립 및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동사는 ZTNA 솔루션을 개발 완료했다. 이 제품은 NAC와 EDR보다 높은 단가가 예상되며, 향후 제로트러스트 본격 도입 시 높은 마진율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25%를 넘는 수준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도 매우 우호적이다.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기관만 해도 여러 곳이며, 이들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미팅을 진행 중이다. 외국계 기관은 주주 친화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동사는 배당 성향을 20%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도 병행하며 주주 친화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확대를 방향성을 눈 여겨 보면 좋을 것이다.

Q&A

Q. 외국인 지분과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및 분위기는 어떠한가?

A. 외국계 투자자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꾸준히 실적 예상치를 충족해왔고, 주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외국계 투자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매년 한 차례 이상 동사와 접촉하고 있다

Q. NAC 제품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A. NAC는 하드웨어가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I 사업을 병행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좋은 편이다.

Q. EDR 제품군의 이익률은 어떠한가?

A. EDR은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돼 있어 NAC보다 이익률이 더 높다. NAC도 20% 넘는 이익률을 기록하는데, EDR은 그것보다 더 나온다. 또한, EDR은 고객의 수요에 맞춰 기능 추가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가 수주도 가능하다.

Q. 외산 EDR 솔루션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A. 외산 제품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이다. 그러나 국내 공공기관은 망 분리 구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제품은 들어가기 어렵다. 실제로 국내 조달 시장에서 동사가 49%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이나 금융기관 PoC를 통과해 도입 가능한 대표적인 업체는 동사와 안랩이 있다.

Q. EDR 제품의 첫 글로벌 고객사는 언제 생겼고, 어떤 배경에서 확보되었는가?

A. 지난해, 한 고객사의 요청으로 중동 지역에서 제품을 런칭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0여 개 이상의 현지 기업들이 PoC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최초로 글로벌 EDR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문의나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Q&A

Q. 중동 시장의 사이버 보안 수요는 어떤 이유로 커지고 있는 건가?

A. 중동 지역은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장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트윈 구축을 포함하여 건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은 정치적·제도적 환경이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클라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Q. 해외에서 기술 지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A. '25년 3월, 동사는 인도에 글로벌 기술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중동 및 유럽 지역에서는 24시간 기술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인도 거점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센터는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향후 인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쓰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리포트 발간내역

발간일	2025.06.17			
주가	21,250원			